

지원신청 현황

-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 지원신청 접수 4건
-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 지원신청 접수 1건

심의 경과 및 심의위원

사업명	심의 경과	심의위원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2020.3.24.(화) 12:00~14:00	고충환 (미술평론가) 김종길 (경기도 미술관 학예팀장)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2020.3.24.(화) 14:00~17:30	김지연 (d/p 디렉터, 前학교재 기획실장) 석창우 (화가, 서예가) 최두수 (설치미술가, 유니온 아트페어 감독)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사업>	2020.3.30.(월) 14:00~16:00	김소연 (연극평론가) 박마루 (복지TV 사장)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심의기준

심의기준	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 취지 및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 필요와 욕구에 기반 하였는가?
사업계획의 실현성·타당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성(타당성)이 충분한가? ▪ 전체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 단계별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추진체계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가? (작품선정 등)
사업수행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실적(및 전년도 평가결과)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획, 관객개발, 홍보 등)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기획자 및 전문가(큐레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아트페어) 작품 판매 및 국내외 작품 유통 활로 개척 역량이 충분한가? ▪ (교류전) 국외 교류활동 경험과 지속적인 국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가?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장애인 예술가의 역량강화 및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심의총평

■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분야에는 총 4건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서류 및 대면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시각예술 분야는 아직 미술시장의 분화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되 아트페어 본연의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과 시도가 드러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사업 모두 미술전문가 및 전문기획사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아트페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색과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업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결국 장애예술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심의위원들은 입을 모아 동의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를 검토하며 아트페어라는 명확한 사업성격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이나 전시행사의 성격이

아트페어와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는 점, 아트페어에 필수적인 컬렉터 및 구매층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부족이 아쉽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행사중심의 계획에 따른 마케팅 예산 대비 공간 대관료나 행사운영비의 과도한 예산비중도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신청단체들은 작품 매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는데 이는 아트페어 본연의 시장지향적인 역할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장문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활성화가 어렵다면 기존 제도상의 미술은행, 매칭판매 루트와 같은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도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서류 및 대면 심의과정에서 신청사업들의 뚜렷한 차별점이나 신청단체의 수행역량 상의 차별적인 장단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선정단체 결정에 어려움을 주었고 심의위원들은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아트페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외에도 사업수행의 실현가능성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안의 제시, 신청단체 성격의 부합성과 운영조직의 안정성, 장애예술계 내에서의 인지도 및 협업단체와의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성 및 원활성 제고 여부를 기준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신청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분별하기 위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선정단체를 결정하였으며 많은 노력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미선정단체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선정단체에게는 축하와 함께 심의과정 및 심의평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미술의 활성화와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인지도 및 지속적인 사업성과가 두드러지는 점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계획서 상에 드러난 대관료의 과다한 예산배정, 협업단체의 성격이 아트페어의 목적과 다소 상이하고 초대작가 전시의 역할과 비중이 강조되어 주최단체의 역량강화 및 아트페어 본연의 행사 목적이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의 핵심취지인 미술시장 개발 및 활성화 전략 부재, 개별 프로그램 실행 매뉴얼의 구체성 부족, 사업의 목적이 장애인 미술 작품의 판로개척에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특히 아트페어의 성격에 맞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 또한 상세하게 적시되지 않은 점, 전시행사로서의 기획안은 좋으나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빛소리친구들’은 지난해 선정단체로서의 노하우는 충분히 인정되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2년차 사업수행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의 발전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아트페어의 성격에 적합한 발전적인 방향성이 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관객개발의 측면을 넘어 구매층과 컬렉터와의 연결지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사업계획서상 홍보 및 판매방안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고 아트상품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내용도 기대만큼 충실하지 못하였고, 장애인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조명하여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다소 미흡한 계획서라고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었으나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과정이 제시되지 못하여 연속적인 행사 운영의 장점과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표현예술연대’는 장애인 예술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단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트페어라는 사업성격의 특수성과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애 미술인의 현실에 대한 이해,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단체보다 높아 보이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아트페어라는 대형 미술행사의 사업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 마케팅 및 판매전략에 부합하는 수행조직의 구축, 시장지향적인 홍보전략이 다소 추상적이었으며 대면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기획내용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되었다는 것과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는 점이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행사의 원활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 운영 역량의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트페어의 중요 기능인 컬렉터 개발 및 마켓 활성화 전략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시 플랫폼을 토대로 컬렉터를 유입시키고 마켓을 작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실행 매뉴얼을 추가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 페어를 유의미한 행사로 만들 수 있는 단체일 수 있겠다는 점에 심의위원들은 동의하였습니다. 장애인 미술작품의 판로 개척에 대한 홍보전략, 마케팅 전략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컬렉터나 고객을 위한 공간 전략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행사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운영을 기대합니다.

■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

국제 장애인 미술교류전은 장애인 미술가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 규모가 상당한데도 지원신청 단체가 1건에 불과하여 저조한 신청률이 아쉬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은 신청한 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고 미술행사 경험이나 장애예술계 내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신청단체가 다수의 전시회 개최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장애예술계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지도와 역할은 긍정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사업에 따른 전시 기획의 전문성과 내용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쪽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부 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보완한 전시기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지원결정 합니다.

(작가선정 및 전시기획 보완) 국가 간 교류 및 국제교류에 적합한 작가 및 작품 선정(공모는 다수 참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수작가의 선별 및 질적인 내용을 조명하는데 미흡함)과정 보완, 그리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인력 및 기획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완(전시의도, 4개 주제의 심화 및 간소화)

(실행계획 보완) 아티스트 피, 작품운송, 보험 등 교류사업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 전시 공간 연출 계획 등 체계화 및 시각화하여 제출

■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정보와 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청건수가 매우 저조하여 국내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위한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모에 신청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며, 기존 사업 성과와 경험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서 적절한 사업수행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본 지원사업의 취지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전문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이와 함께 문화예술가(단체)의 참여와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청단체가 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에는 수긍하나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콘텐츠를 선별하고 제작하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결합이 전제되지 않고 단체의 인력으로 사업신청에 참여한 점은 본사업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이 심사의원들의 의견이었다. 이 사업에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에 목표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경험과 인프라가 연결되는 컨소시엄 구성이 적합한 사업추진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에서의 전문성 담보, 제공되는 콘텐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성 제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을 포함한 전문성 높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공모과정에서는 지원사업 단체를 선정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며 선정되지 않은 단체도 이에 실망하지 말고 향후 더 좋은 제안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